마다가스카르 총독부

독일과 와칸다라는 두 시련을 겪으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아프리카 영토는 대부분 황폐화 되었지만 섬이었던 마다가스카르는 전쟁의 화마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피해만 없었을뿐, 독일의 유대인 배척 정책으로 인해 200만명의 유대인들이 마다가스카르 섬으로 유입되었고 섬 전체 인구의 1/3이 유대인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1940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총독으로 부임중인 피에르 마리-쾨니그 장군은 유대인, 말라가시인, 프랑스인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칼날 위를 걷고있는 상황이며 영불연합의 정치적 혼란에 술렁이는 900만 마다가스카르인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상황

프랑스령 마다가스카르는 1908년 수립이후 본국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일반적인 식민지 정부에 불과했으나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전쟁이 수렁에 빠지고 독일까지 프랑스 본토를 공격하자 사실상 본국의 명령은 중단되었고 지금까지 총독으로 앉아있는 피에르 마리-쾨니그 장군의 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본국에서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해 좌천당한 피에르 마리-쾨니그 장군은 본토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은 하나도 없으며 전임자가 벌려놓은 유대인 수용 문제와 원주민 문제 등 산더미 처럼 쌓인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싶어합니다. 만약 영불연합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면 그는 본국과의 연락을 아예 끊어버릴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 경제

마다가스카르는 기본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식민지 국가입니다. 역대 총독들은 원주민을 착취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생각 뿐이었고 주요 산업이 농업이었기에 철도, 항만과 같은 시설은 거의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총독부는 바닐라 향료의 생산과 상업작물 플랜테이션의 확장에만 몰두했고 말라가시인들은 주요 식량이 쌀의 부족으로 굶어죽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원주민들에게는 다행히도, 아프리카에서의 전쟁과 독일의 본토 침략은 상업작물들의 수요를 크게 줄여 다시 플랜테이션들은 논으로 돌아갔고 말라가시인들은 한 숨 돌리게 되었지만, 전쟁이 소강 상태에 이르고 200만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섬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섬 남부에는 독일의 투자로 유대인들의 신도시가 지어졌고 졸지에 자신들의 1/3에 달하는 이방인을 받아들이게 된 말라가시인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경제2

새로 들어선 독일 정부가 유대인 추방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해준 엄청난 원조 금액은 마다가스카르 정부를 돈다발 위에 앉혀 주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를 식민지가 아니라 자신의 '영지'와 같이 인식하는 피에르 마리-쾨니그 장군은 이 자본으로 수탈만을 위한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던 마다가스카르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바닐라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하여 산업을 다각화 하기 위한 첫걸음을 띄었습니다. 이 과정에 피에르 마리-쾨니그 장군은 도시지역은 유대계 기업에, 농촌은 한-일 이중제국의 기업에 외주를 맡겼고 철도 부설과 항만 건설, 광산 개발, 경공업 진흥 등 마다가스카르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조금씩 진행해 나갔습니다…

마다가스카르 게임 시작 후 상황

농촌지역 개발을 맡은 한국계 기업인 대우 로지스틱스가 한, 일 이중제국이 흔들리자 마다가스카르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남 농촌의 말라가시인들은 사업을 마무리도 짓지 않고 땅을 파해쳐놓은 기업들에 대한 불만이 터져서 이벤트 체인 시작, 마다가스카르 독립전선이 형성되고 여기서 피에르 마리-쾨니그 장군이 어떤 선택지를 고르는가에 따라서 총독부가 붕괴되거나 위기를 넘길 수 있음. 쾨니그 장군이 질서를 회복하면 기업들을 압박해서 말라가시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거나 유대-프랑스 동맹을 통해 섬 전체를 기업국가화 시키는 선택지가 있음 쾨니그 장군이 정상적으로 질서를 회복하면 안정도가 좀 깎이는 대신 대우 로지스틱스가 돌아와서 농법 전수랑 농촌 진흥 운동을 통해서 농업생산량을 극적으로 증대 가능함